

글로벌 스마트빌딩 시장, 에너지효율·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로 2031년 3,566.8억 달러 전망

해당국가	글로벌	기관(기업)	Mordor Intelligence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글로벌 스마트빌딩 시장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건물 에너지관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6년 1,630.7억 달러에서 2031년 3,566.8억 달러로 연평균 16.95% 성장 전망

-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자동제어·에너지관리·보안·데이터 분석을 연계한 스마트빌딩 수요가 확대
 - EU를 비롯한 주요국이 신축 건물의 에너지·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건물 운영단계의 에너지 절감과 배출관리 기술 도입을 촉진
 - 센서·데이터 기반의 자동제어를 통해 냉난방·조명·설비 운영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스마트빌딩 기술의 활용이 확대
- 시장은 조명·보안·에너지관리 등 솔루션 중심에서 데이터 분석·관제 등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기존 건물 적용을 위한 무선 기반 기술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구조
 - 솔루션이 전체 시장의 67.40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분석·관제 서비스가 연평균 17.20% 성장하며 운영·관리 중심의 서비스 시장이 확대
 - 유선 연결이 54.75%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의 배선 제약을 줄일 수 있는 무선 방식이 연평균 18.35% 성장하며 적용이 빠르게 확대

□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확대되면서 개보수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아시아·태평양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가속

- 기존 건물 개보수가 전체 시장의 61.85%를 차지하며 신축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, 탄소배출 규제와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반으로 관련 투자가 확대
 - 기존 오피스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어·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비용과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개보수 수요가 증가
 - 신축은 설계 단계부터 통신·데이터·에너지관리 인프라를 통합하는 방식이 확산되며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추진
- 지역별로는 아시아·태평양이 최대 시장이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도 AI 기반 예측정비와 구독형 관리서비스를 확대하며 시장구조가 운영·서비스 중심으로 확장
 - 중국·한국·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와 건물 디지털화 투자가 확대되면서 아시아·태평양이 시장 점유율 31.55%, 연평균 성장률 19.85%로 성장을 주도
 - 하니웰·지멘스·슈나이더·ABB 등 주요 기업은 AI 분석·예측정비·원격관제 서비스를 확대하며 일회성 설비 구축에서 지속적인 운영·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전환

※ 출처 : Mordor Intelligence(2026.07.31), Smart Building Market Size & Share Analysis - Growth Trends and Forecast (2026 - 2031)